

리머의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 재해석*: 아렌트의 후기-근대적 인문교육 개념을 경유하여

Reinterpreting Reimer's Experience-Based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through Arendt's Late-Modern Conception of Humanistic Education: Nativity, World, and Reflective Judgment

박민형**

Minhyung Park 

초록 본 논문은 개인적 의미 경험과 공동체 간 양립 가능성에 주목하여, 아렌트의 후기-근대적 인문교육 개념, 특히 탄생성-세계-반성적 판단 개념을 분석 틀로 삼아 리머의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을 재독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머 제3판을 1차 분석 대상으로 삼아 아렌트 저서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토대로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을 재구성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머에게 창의성은 누구나 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역할별 실천에 따라 특수화된다. 둘째, 음악은 소리를 매개로 인간 경험에 특별함을 더하는 세계이며 사람들을 맺어주면서도 분리하는 사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반성적 판단은 좋은 귀, 역할별 창의성과 내재적 윤리를 통해 사적 느낌이 예증적 타당성을 갖춘 공적 형식으로 정련하도록 이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천주의와 다른 경로로 세계 중심 비도구적 결속과 분리를 구성적으로 제안한다. 이로써 전정치적 학교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이 공통감과 확장된 사고, 소통 가능성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 준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베넷 리머,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 한나 아렌트, 후기-근대적 인문교육 개념, 탄생성, 세계, 반성적 판단

Abstract This study reinterprets Bennett Reimer's experience-based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through Hannah Arendt's humanistic political aesthetics—particularly her concepts of natality, world, and reflective judgment—to clarify how individual meaning and community can be reconciled. Using Reimer's third edition as the primary object of analysis, the paper reconstructs an experience-based philosophy on the basis of concepts drawn from Arendt's works by means of a literature-based philosophical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Reimer, creativity can be understood as a new beginning open to all and becomes differentiated by musical roles such as composition, performance, improvisation, and listening. Second, music functions as a world that adds specialness to human experience through sound and can be understood as an in-between that both relates and separates people, supplying a common point of reference. Third, reflective judgment—through the good ear, role-specific creativities, and ethical dispositions internal to music-making—refines private feeling into a public form with exemplary validity. The study thus constructively proposes a world-centered, non-instrumental mode of cohesion and separation as a route complementary to praxial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ccordingly, it offers lesson-design criteria for pre-political school contexts that train *sensus communis*, enlarged mentality, and communicability in music education.

Key words: Bennett Reimer, experience-based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Hannah Arendt, late-modern conception of humanistic education, natality, world, reflective judgment

* This article is a revised and expanded version of the author's master's thesis submit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3).

** Corresponding author, E-mail: kreisleriana@snu.ac.kr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Music Education,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5, Reviewed (Revised): 31 December 2025 (1 February 2026), Accepted: 6 February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로 사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명시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따라서 음악 교과는 음악과 상호작용하며 성립하는 개인적 의미 경험을 전제하면서도, 그것이 공동체와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두 교육적 지향 사이 긴장에 체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유력한 이론적 계보 가운데 하나는 ‘실천주의(praxial)’ 음악교육철학이다. 데이비드 엘리엇(D. Elliott)은 심미적 가치 중심 목적 규정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며 음악교육 목적을 음악적 실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Elliott, 1995). 이후 마리스 실버만(M. Silverman)과 함께한 개정 2판에서는 ‘예술적 시민성(artistic citizenship)’을 주요한 개념으로 도입하고 돌봄과 정의 등 윤리적 책무와 실천을 강조한다. 이들은 음악하기와 음악듣기가 개인에게 더하는 심오한 의미를 폭넓게 전제하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음악적 실천을 핵심 가치로 명시한다(Elliott & Silverman, 2021, pp. 112, 164-165).

한편, 베넷 리머(B. Reimer)는 오랫동안 음악교육 정당화 논리를 제공해 왔지만, 그가 어떻게 개인적 의미 경험과 공동체를 조화시키는지의 해석이 엇갈린다. 리머 제3판 『리머의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dvancing the Vision)』에 따르면, 음악적 경험에서 감정은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이 공존하며 각각은 서로를 강화한다(Reimer, 2017, pp. 120-121). 반면, 엘리엇과 실버만은 심미적 철학과 시너지스틱 철학을 “심미적 철학”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하며, 심미적 철학이 “추상적, 뇌적, 이지적” 측면만을 특권화한다고 지적한다(Elliott & Silverman, 2021, p. 121). 나아가 음악을 심미적 대상으로 파악할 때 음악은 수용적·개인적 의미로 한정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다(Elliott & Silverman, 2021, p. 93). 토마스 레겔스키(T. Regelski)는 심미주의 전통이 사회적 가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Regelski, 2005, 2011, 2016), 후속 연구에서 심미주의 전통을 옹호하는 대표자로 리머를 지칭한다(Regelski, 2022, pp. 17-18). 요컨대 쟁점은 리머가 제시하는 음악적 경험이 무엇을 배제하는지, 공동체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지로 압축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하에서 ‘심미적(aesthetic)’이라는 용어를 논쟁 맥락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¹⁾

1) 본고에서 ‘심미적’은 영어 *aesthetic*를 번역한 용어이며, ‘미적’과 의미상 구분되는 다른 영어 표현을 전제하지 않는다. 본문에서는 ‘미적 경험/미적 동기/미적 표지’ 등 관용적으로 굳어진 결합에서는 ‘미적’을 병행하여 쓰되, 이것은 모두 *aesthetic*을 가리킨다. 다만 실천주의 문헌 내에서 심미적 철학은 때로 ‘심미주의(aestheticism)’

그러나 리머를 심미주의 전통 연장선상에서만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에 헌신하는 필자에게 리머는 실천주의 음악교육철학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음악교육적 통찰을 남기는 것 같다. 본고는 이 통찰을 해명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리머는 제3판에서 ‘시너지스틱 접근(synergistic approach)’을 표방하며 심미주의와 실천주의 등 여러 대안적 관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동시에 리머는 음악적 경험이 인간 형성에 기여하는 힘과 음악만이 인간에게 더할 수 있는 ‘특별함(specialness)’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둔다. 특별함이란 모든 음악을 관통하는 공통 속성으로, 음악이 ‘소리’라는 고유한 재료로 생산되고 공유될 때 발생하는 의미를 뜻한다(Reimer, 2017, p. 111). 그리하여 리머는 “음악이 경험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식에, 그리고 음악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모든 다양한 음악에 초점을 두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향하는 철학”으로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을 정의한다²⁾(Reimer, 2017, p. 113).

본고는 리머 제3판을 일차적 분석 대상으로 하되, 정치이론가이자 교육철학 담론에서 널리 참조되는 사상가 한나 아렌트(H. Arendt)가 제시한 후기-근대적 인문교육 개념, 특히 탄생성-세계-반성적 판단 개념을 분석 틀로 삼아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을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아렌트를 참조하는 이유는, 다원화된 후기-근대적 가치 지형에서 교육이 더 이상 단일한 공동 목적을 전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iesta, 2022). 그럼에도 아렌트는 세계라는 매개를 통해 개별성과 공공성을 함께 사유할 수 있는 개념 장치를 제공한다(Lilja, 2018; Reichenbach, 2023).

아렌트에게 “교육의 본질이란 탄생성”이다(Arendt, 2023a, p. 329). 탄생성은 인간이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능력으로, 유일무이성을 함의하되 세계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Arendt, 2019, 2023a). 한편 아렌트는 세계를 공동 탁자에 비유한다. 탁자를 둘러앉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세계를 조명하며 고유한 관점을 형성한다. 이로써 아렌트에 따르면, “세계는 사람들을 땀어주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한다”(Arendt, 2019, p. 135). 반성적 판단은 개인이 사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타자에게 동의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동의 가능성을 청구하는 공적 형식으로 정련하는 전환을 매개한다(Arendt, 2023b). 이 틀은 인간에게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함을 더하는 세계를 중심으로 개인적 의미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적 경험으로 만드는 개념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이 실천주의와는 다른 논리로 두 교육적 지향을 조화시킬

와 결부된 비판적 범주로 사용되므로, 이를 소개·인용할 때는 해당 범주명을 따른다. 한편 리머는 영어에 생산이나 창작과 결부된 ‘예술적(artistic)’과 지각 또는 향유와 결부된 ‘심미적(aesthetic)’을 함께 포괄하는 단어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aesthetic*이 문맥에 따라 광의 또는 협의로 흔들리는 애매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Reimer, 2017, p. 30).

2) 본고에서 ‘경험(experience)’은 리머가 규정한 용례, 즉 음악과 접촉하며 발생하는 모든 의미 경험을 가리키는 말로 한정한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아래에서는 아렌트의 후기-근대적 인문교육의 핵심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것을 통해 리머의 음악교육철학을 새롭게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II. 아렌트의 세 가지 개념: 탄생성-세계-반성적 판단

아렌트에 따르면 교육은 우리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만큼 세계를 사랑할지, 그리고 아이들이 세계를 새롭게 할 과업을 수행하도록 미리 준비시킬 만큼 그들을 사랑할지를 결정하는 지점이다(Arendt, 2023a, p. 358). 본 장은 아렌트의 이러한 교육관을 기반으로 탄생성-세계-반성적 판단 개념을 명료화하고, 이후 리머 제3판의 창의성 개념과 특별함 개념을 재해석하는 기본 틀 혹은 참조점으로 삼을 것이다. 탄생성과 세계 개념은 『과거와 미래 사이: 정치사상에 관한 여덟 가지 철학 연습(Between Past and Future)』(Arendt, 2023a)에 실린 「교육의 위기(The Crisis in Education)」와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Arendt, 2019)을, 반성적 판단 개념은 『칸트의 정치철학(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Arendt, 2023b)을 참조하여 재구성할 것이다.

1. 탄생성: ‘무엇’에서 ‘누구’로

아렌트에 따르면, 플라톤 이래 서구 형이상학 전통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관조를 특권화하며 인간을 일반화할 수 있는 속성, 즉 ‘무엇(what)’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 이는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을 노동·제작·행위로 이루어진 ‘활동적 삶(vita activa)’보다 우위에 둔 서구 전통 철학적 위계에서 선명히 드러난다(Arendt, 2019, pp. 91-92).

그러나 아렌트는 관조적 삶을 우위에 두는 전통적 위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불변하는 것 대신 새로운 시작 능력에 주목하고, 예측 가능한 것 대신 예측 불가능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 각자가 지닌 새로운 개시 능력을 조명한다. 아렌트는 “인간이 ...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여(Arendt, 2019, pp. 353-354) 인간을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Arendt, 2023a). 즉, ‘탄생성(nativity)’은 각자가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능력으로 ‘출현(appearance)’ 양식 속에서 드러난다(Arendt, 2019, pp. 275-276). 교육은 세계를 새롭게 할 새내기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능력을 보호하는 한편, 이미 존재하는 세계에 이들을 소개해야 하므로 탄생성에 근거한다(Arendt, 2023a, pp. 329, 358).

아렌트는 생물학적 탄생을 전제하되 그것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말과 행위로 새로운

시작이 개시되는 사건을 ‘두 번째 탄생(second birth)’으로 비유한다(Arendt, 2019, p. 275). 생물학적 탄생이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첫 번째 탄생이라면, 두 번째 탄생은 인간이 세계에 출현하여 새로운 시작을 여는 존재론적 탄생을 의미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에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무엇이 아닌 ‘누구(who)’로 나타난다(Arendt, 2019, p. 276). ‘행위(action)’란 아렌트가 구분한 활동적 삶 가운데 하나로, 타자와 함께 ‘무엇’이 아닌 ‘누구’를 표명하며 새로운 시작을 여는 활동을 의미한다(Arendt, 2019, p. 276).

아렌트는 ‘누구’를 말하려는 시도조차 언어가 ‘무엇’을 말하도록 이끈다고 지적하며 ‘무엇’과 ‘누구’를 구별한다(Arendt, 2019, p. 87). 아렌트가 무엇과 누구를 엄격히 구별하는 까닭은, 인간을 ‘무엇’, 즉 특정한 속성이나 자질로 환원하는 인식 습속은 ‘누구’, 즉 말과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유일무이성을 지워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출현은 인간 누구도 “다른 누구와 동일하지 않다는” ‘복수성(plurality)’, 곧 각기 고유한 인간이 타인과 함께 세계에 거주한다는 조건을 전제한다(Arendt, 2019, p. 85).

이처럼 탄생성은 타인과 함께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는 능력을 뜻한다. 특별히 두 번째 탄생은 새로운 개시 능력이 말과 행위를 통해 공적으로 현실화되는 사건이다. 출현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며, ‘복수성’을 조건으로 한다. 이제 출현을 떠받치는 세계와 출현이 가시화되는 출현 공간을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2. 세계와 출현 공간

아렌트는 ‘공적(public)’이라는 개념을 서로 밀접하되 일치하지 않는 두 차원, 곧 ‘세계(world)’와 ‘출현 공간(space of appearance)³⁾’으로 이해한다. 세계는 ‘제작(work)⁴⁾’이 구축한 내구성 및 객관성을 근거로 사람들 사이에 놓여 사람들을 맺어주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한다. 출현 공간은 사람들이 말과 행위로 함께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개시되는 차원이다(Arendt, 2019, pp. 132-136). 아렌트가 말하는 ‘공동 탁자(common table)’ 비유는 탁자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놓인 ‘세계’가 탁자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맺어주면서도 분리하는 양상을 잘 보여 준다(Arendt, 2019, p. 135).

3) 본고는 *space of appearance*를 ‘출현 공간’으로 옮긴다. 아렌트에게 *appearance*는 사람들이 말과 행위로 서로에게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킨다. 따라서 ‘현상의 공간’보다는 출현 공간이 개념 취지를 더욱 정확히 반영한다. 국내 통용 번역본 용례와는 달리 본고는 위와 같이 용어를 통일한다.

4) 본고는 *work*(독일어 *Herstellen*)를 ‘제작’으로 옮긴다. 아렌트가 말하는 *work*는 소모되어 사라지는 순환에서 벗어나 내구성 있는 사물을 제작(*fabrication*)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국내 일부 번역본은 이를 ‘작업’으로 번역하지만, 작업은 의미상 일반적인 과업까지 포괄하므로 본래 의미가 희석될 소지가 있다. 반대로 ‘제작’은 재료를 가공하여 내구성 있는 산출물을 만든다는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하여 아렌트가 구분한 취지에 더욱 근접한다고 판단한다. 동일 번역어 선택으로 박은주(Park, 2018)를 참조한다.

1) 세계: 인공적 내구성과 객관성

아렌트는 자연적 순환을 넘어 인간이 제작으로 구축한 내구적 사물과 구조를 ‘세계’라 총칭한다(Arendt, 2019, pp. 229-231). 노동이 생물학적 필요 충족을 위해 곧바로 소비되는 산물을 낳는 반면(Arendt, 2019, pp. 83, 184-189), 제작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지속성을 지닌 사물로 세계를 구축한다. 세계가 지닌 지속성은 객관성으로 작용하며, 사람들 사이에 놓여(inter-est) 서로를 맺고 분리하는 기준점을 형성한다(Arendt, 2019, p. 135). 사람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공동으로 둘러싼 세계를 비추고 관점을 교차할 수 있다(Arendt, 2019, p. 230).

예술작품은 인간이 제작한 사물 가운데 가장 높은 내구성을 지녀 세계를 구성하는 특수한 범주에 속한다. 아렌트는 예술작품이 유용성과 소비 회로에서 벗어나므로 높은 내구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탱한다고 본다(Arendt, 2019, pp. 264-267).

다만 세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세계를 구축한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듯 세계도 서서히 낡아가기 때문이다. 이 세계가 새로움을 공급받는 경로는 탄생성, 즉 새로운 세대가 가져오는 새로운 시작이다(Arendt, 2023a, p. 353). 세계는 지속과 시작 사이의 긴장 위에 놓이며, 전자는 내구성과 객관성을 제공하고 후자는 갱신을 담당한다. 따라서 ‘출현 공간’은 세계와 상보적으로 작동한다. 세계가 공통 참조점으로 타자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놓인다면, 사람들은 이를 둘러앉아 자기 자리에서 세계를 조명한다. 또한 말과 행위로 열리는 출현 공간에서 관점이 교차하고 각자는 누구로서 드러나게 된다.

요약하자면, 세계는 내구성과 객관성을 근거로 사람들 사이에 놓이고, 출현 공간은 사람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각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새로운 시작이 현실화되는 장(場)을 의미한다. 이 이중 구조에 따른 교육적 귀결은 출현 공간 논의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2) 출현 공간: 말과 행위로 여는 새로운 시작

출현 공간은 동등한 자들이 말과 행위로 함께할 때마다 공적 현전이 개시되는 장이다. 이는 고정된 실체나 장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지거나 말과 행위가 멈추면 사라지는 가변적 장이다. 아렌트는 정치적 삶이 바로 이러한 출현 공간에서 성립한다고 본다(Arendt, 2019, pp. 300-301). 출현 공간은 세계와 동일하지 않으며, 두 현상은 연동되지 구별된다(Arendt, 2019, p. 135).

출현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 인간은 말과 행위를 통해 누구로 나타나며(Arendt, 2019, p. 276), 이 드러남은 복수성, 곧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나는 상호 출현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한다(Arendt, 2019, pp. 83-85). 곧 유일무이성은 내면에

주어져 있는 본성이 아니라, 타자와 주고받는 말과 행위 속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서로에게 확인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아렌트가 두 번째 탄생에 비유하는 사건, 즉 말과 행위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사건은 행위에 내재한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Arendt, 2019, p. 275). 아렌트가 말하듯, 이때 “이전에 발생한 어떤 것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Arendt, 2019, p. 276). 아렌트는 새로운 세대가 가져오는 새로움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릴 수 있도록 탄생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Arendt, 2023a, p. 358).

출현 공간이 특징으로 하는 가변성은 세계와 상호 의존한다. 세계는 내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 놓이고, 새로운 세대가 가져오는 탄생성은 낡아가는 세계를 갱신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학교는 결코 세계가 아니며”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과 공적 세계⁵⁾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기관이다(Arendt, 2023a, p. 347). 학교는 아이에게 정치적 책임을 직접 부과하지 않는 ‘전정치적(pre-political)’ 시공간으로, 정치적 영역으로 나아가 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아렌트는 학교교육이 다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새로운 세대에게 소개하고 둘째, 새로운 세대가 가져올 탄생성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열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Arendt, 2023a, pp. 348, 353). 낡음과 새로움은 서로 대항하지만(Arendt, 2023a, p. 352), 새로운 세대가 낡은 세계와 친숙해지도록 이끄는 것과 낡은 세계에 새로운 세대가 가져올 새로움이 공급되도록 보호할 과제는 동시에 요청된다.⁶⁾

그리하여 아렌트가 제안하는 교육적 과업은 ‘세계 사랑(amor mundi)’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교육은 우리가 세계를 사랑할지, 동시에 아이들을 사랑할지를 결정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Arendt, 2023a). 따라서 우리에게 내구성과 객관성을 제공하는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새로운 세대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동시에 요구된다. 두 과업을 조화롭게 성취하려면, 사적으로 형성된 의미가 공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형식으로 성숙하는 경로를 밝힐 필요가 있다.

5) 본고는 ‘공적 세계(public world)’를 아렌트가 쓰는 *public*에 따른 이중 의미, 즉 사람들 사이에 놓이는 세계와 말과 행위가 나타나는 출현 공간이 겹쳐 드러나는 국면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6) 거트 비에스타(Gert Biesta)가 제안하는 ‘세계 중심 교육(world-centred education)’은 아렌트가 제시한 두 교육적 과제와 공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에스타에게 세계란 본문에서 다른 세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우리와 독립된 실재로서 우리 바깥에서 한계를 부과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우리에게 응답을 요청한다. 따라서 세계 중심 교육이란 세계를 교육적 준거로 세워 학습자가 세계가 요구하는 바를 마주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른 한편, 비에스타에게 교육은 주체화와 밀접하다. 그가 말하는 ‘주체화(subjectification)’란 학습자가 타자와 더불어 세계에 주체로서 응답할 가능성을 여는 일로, 탄생성 보호라는 과업과 접점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Biesta, 2022).

3. 반성적 판단: 사적 의미의 공적 형식화

앞 절에서 확인했듯, 공적 현전은 출현 공간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아렌트에 따르면 사적 의미는 곧바로 공적으로 드러날 수 없으며, 타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형식(form)’을 갖출 때에야 공적 의미를 획득한다(Arendt, 2019, pp. 132-133). 아렌트는 칸트가 제시한 ‘반성적 판단(reflective judgment)’, 특히 ‘취미 판단(judgment of taste)’에서 강제 없이 동의를 청구하는 판단 형식을 정치적 판단 모형으로 전유한다. 이러한 전유가 전정치적 학교 맥락에서 어떤 소통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밝히기 위해, 우선 칸트가 말하는 반성적 판단 개념을 간략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칸트에게 반성적 판단은 이미 주어진 보편 규칙에서 개별자를 포섭하는 ‘규정적 판단(determinative judgment)’과 달리 개별자에서 출발한다(Kant, 2009, Introduction IV). 그러나 보편적인 개념적 정의나 규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타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주관적 보편성을 청구한다(Kant, 2009, §§7-8). 주관적 보편성은 사적 취향에 고립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시되고 검토될 수 있는 공적 성격을 함축한다. 이때 말하는 보편성은 논증적 증명이 아니다. 그것은 ‘예증적 타당성(exemplary validity)’으로, 본보기로 타당성을 제시하고 타인에게 동의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성립한다(Arendt, 2023b, pp. 168-169, 180-181; Kant, 2009, §§18, 22). 따라서 판단 주체는 사적인 느낌이나 의미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형식으로, 혹은 타인과 공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련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렌트가 전유한 반성적 판단은 세 가지 규범적 요건에 의존한다. 첫째, ‘공통감(sensus communis)’이다. 공통감은 통계적 상식이나 다수 여론이 아닌, 강제 없는 설득으로 타인에게 동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공개성을 요구하는 규범적 감각이다(Arendt, 2023b, pp. 156, 158-160). 둘째, ‘확장된 사고(enlarged mentality)’다. 확장된 사고는 상상력으로 타인의 관점을 ‘방문(visit)’하여 내 판단을 타인이 취할 법한 관점을 고려하며 재형식화하는 훈련을 뜻한다(Arendt, 2023b, pp. 112-113). 셋째, 소통 가능성(communicability)이다. 소통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반성적 판단은 참 또는 거짓을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소통 가능성은 판단이 개인적인 ‘의견(doxa)’에 머무르지 않고, 공개적 형식화를 거쳐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각자가 세계를 조명하며 형성한 고유한 관점을 타인이 검토하고 이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정련하는 절차로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판단 주체는 행위에서 한 걸음 물러선 관객으로서 자신이 보는 바를 서술하고 평가한다(Arendt, 2023b, pp. 156-158). 아렌트에게 정치는 동등한 자들이 말과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공적 현전이지만, 행위는 행위만으로 완결된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행위는 타인이 관객으로서 이를 바라보며 내리는 판단에 상호 의존한다.

위 세 규범은 공적 영역에서 완전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학교교육은 전정치적이므로, 본고는 세 규범을 학교교육 맥락에 직접 이식하는 대신 소통 규범으로 제한하여 참조하고자 한다. 곧, 반성적 판단은 사적으로 형성된 의미, 곧 개별적 관점에서 형성된 의미가 공통감을 가늠하는 이유 제시와 공개 가능한 형식을 통해 타자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언어로 성숙하도록 이끄는 전환 규범을 제공한다. 이 전환 규범은 정치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되, 훗날 공적 공간에서 요구될 확장된 사고와 소통 가능성을 훈련하는 규범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요약하면, 아렌트에게 탄생성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능력으로 복수성을 전제한다. 세계는 내구성과 객관성을 지닌 장으로서 사이에 놓여 사람들을 관련짓는 동시에 분리한다. 반성적 판단은 사적 의미가 공통감과 확장된 사고, 그리고 소통 가능성에 기대어, 예증적 타당성을 갖춘 공적 형식으로 정련되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아렌트에 따르면, 교육은 전정치적 맥락에서 새로운 세대가 가져올 새로운 것을 보호하는 한편, 그들에게 세계를 소개하고 지지하는 세계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Arendt, 2023a, p. 358).

III. 리머의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 재해석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소개한 아렌트의 탄생성-세계-반성적 판단 개념을 분석의 참조점으로 삼아, 리머가 제3판에서 개인적 의미 경험과 공동체성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좀 더 의미 있게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엘리엇과 실버만에 따르면, 음악은 “사람, 과정, 결과물, 맥락”이 상호 통합되는 데 의존하는 사회적 실천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음악 속에서”, “음악에 대하여”, “음악을 통하여”라는 세 구도로 이루어져야 한다(Elliott & Silverman, 2021, pp. 93, 96). 이들은 통념적 심미주의가 음악적 이해를 지식 또는 기술로만 환원하는 위험을 지적하고, 행위와 체화에 뿌리박은 총체적 이해를 제안한다(Elliott & Silverman, 2021, pp. 304-309). 음악적 실천은 맥락적 윤리와 예술적 시민성으로 구체화되며, 음악하기와 음악듣기에는 음악적 의무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무가 있음을 강조한다(Elliott & Silverman, 2021, pp. 399-402).

본 장은 실천주의의 공헌을 뚜렷이 인정하되, 다른 논리 경로를 탐색한다. 리머가 말하는 창의성 개념이 어떻게 아렌트의 탄생성과 접속하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 능력이 개시될 공통 참조점으로서 우리에게 특별함을 더하는 음악을 세계 개념에 비추어 재정의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리머가 말하는 ‘특별함’을 고정된 미학적 실체로 본질화하는 이해를 넘어, 음악의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는 새로운 해석의 언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적으로 형성된 음악적 의미가 공통감과 확장된 사고, 소통 가능성을 거쳐 공적

형식으로 정련되는 전환 메커니즘을 밝히는 한편, 음악이 전정치적 학교교육 맥락에서 어떻게 개인적 의미 경험과 공동체성을 상호 연결시키고 이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지 보일 것이다.

1. 창의성: 누구나 여는 새로운 시작

엘리엇과 실버만은 심미적 철학과 시너지스틱 철학을 심미적 철학으로 범주화한다. 또한 이들은 심미적 철학이 “추상적, 뇌적, 이지적” 측면만을 과도하게 특권화하며(Elliott & Silverman, 2021, p. 121), 음악을 수용적·개인적 의미로 한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Elliott & Silverman, 2021, p. 93). 그러나 리머는 제3판에서 ‘창조적 차원’을 소수 천재가 독점하는 자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상태(state)’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음악교육은 각 학습자의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imer, 2017, pp. 165-167). 이때 차이는 종류가 아니라 정도에 있으며, 창의성은 작곡·연주·즉흥·감상이라는 역할별 실천 속에서 다르게 구현된다. 아렌트의 탄생성 개념은 리머가 말하는 창의성을 누구나 여는 새로운 시작 가능성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1) Big-C vs. small-c

리머가 요약한 바에 따르면, 하워드 가드너(H. Gardner)와 미하이 칩센트미하이(M. Csikszentmihalyi)가 논의한 ‘Big-C’ 모델(Creativity)은 역사적 탁월성과 사회적 수용을 기준으로 창의성을 구획한다. 두 학자는 개인이 일상적 차원에서 보일 수 있는 창의성을 ‘small-c(creativity)’로 인정하지만, ‘진짜’ 창의성을 판가름하는 준거는 문화 변혁적 성취에 두는 경향이 뚜렷하다(Reimer, 2017, pp. 161-165).

그러나 리머는 소수 천재가 독점하는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상태이자 과정으로 창의성을 ‘민주화’한다(Reimer, 2017, p. 167). 그에 따르면, “누구든지 창의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바로 그때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차이는 종류가 아니라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Reimer, 2017, p. 166). 리머가 말하는 창의성이란 거대한 혁신을 산출하지 않을지라도 다양한 가능성 탐색과 선택이 실재하는 과정적 국면에서 파악된다. 이는 아렌트가 말한 탄생성, 즉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전정치적 교육 맥락에서 보호하고 지지해야 할 것으로 포착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리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작품을 연주하는 사람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일이 어떤 세계 최상급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할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아이

가 진심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도 일어난다고 본다. 이것은 오직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Reimer, 2017, p. 175).

위 인용구에서 리머가 말하는 “어떤 변화”란, 일차적으로 한 개인이 음악적 소리와 상호 작용하며 경험하는 음악 내적 앎과 결부된다. 리머는 음악 내적 앎이 방법적 앎을 습득할 때 본질적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음악적 경험이 가져오는 어떤 변화란 개인 내적 과정이 “외적 표현인 음악적 소리로 현실화”될 때 일어난다고 설명한다(Reimer, 2017, pp. 171, 182-183). 그러므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진심으로 노래를 부를 때” 역시 비록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의미가 소리로 현실화되는 창의적 개시이다. 그리하여 리머에 따르면, 음악교육은 모든 학습자가 이 연속선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Reimer, 2017, pp. 166, 168, 171). 아렌트를 참조하면, 이는 학교라는 전정치적 맥락에서 음악 교과가 학습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창의적 개시를 안전하게 시도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2) 역할별 창의성

리머는 창의성을 민주화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음악이 존재하는 역할 수준에서 창의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논한다. 리머에 따르면, 각 문화가 제공하는 음악적 역할은 창의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틀을 마련한다. 즉, 상상과 독창성, 확산 등 일반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창의성은 역할별 요구에 따라 특수하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단일한 창의성이 아닌, 역할별 음악적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Reimer, 2017, p. 171). 그가 논의하는 역할별 창의성은 심미주의를 향해 제기되는 비판, 즉 음악을 수용적·개인적 의미로 환원한다는 지적에 응답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작곡 창의성은 소리 가능성을 상상하고 포착하여, 그것을 수정하고 검토하며 해결하는 탐구를 통해 의미 있는 음악적 소리를 구성하여 “음악적으로 특별한 것”을 산출한다. 작품을 소리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작곡가는 잠재적 연주자와 청중을 고려하며 음악적 의미를 창출한다(Reimer, 2017, pp. 172-174).

연주 창의성은 “기보된 소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기보된 소리에 음악적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지와 관련”된다. 리머는 “작곡가와 연주자라는 두 세계”가 연주 행위 속에서 통합되며, 매 연주는 “새롭고 독특한 음악적 사건”을 낳는다고 말한다. 기교는 좋은 연주를 위한 필요조건이되 충분조건은 아니다. 연주자는 작품이 거처하는 역사 및 문화적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Reimer, 2017, pp. 174-175).

즉흥 연주 창의성은 “음악적 소리를 연주하는 바로 그 행위 안에서” 구조를 창출하는

동시성을 지닌다. 연주하는 순간 구조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작곡 및 연주 창의성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여전히 음악적 소리를 현실화하며, 새로운 음악적 의미를 향한 끊임없는 탐색이 핵심이다(Reimer, 2017, pp. 177-178).

감상 창의성은 지각적 문제 해결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 리머는 감상하기를 창조적 행위로 보지만,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음악적 소리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음악적 역할들과 구분한다. 감상은 음악을 이해하고 심신을 통합하는 가운데 새로운 음악적 의미를 창조한다(Reimer, 2017, pp. 179-182).

정리하면, 리머에게 창의성은 각 문화가 제공하는 음악적 역할 속에서 소리를 중심으로 의미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결정은 작품 자체뿐 아니라 음악적 관습과 기대, 그리고 문화적 맥락이 제시하는 요구를 참조하며 구체화된다(Reimer, 2017, p. 171). 이를 아렌트의 용어로 읽어 내면, 작품·관습·기대 체계는 음악을 경험하는 사람 사이에 놓여 의미와 판단을 조정하고 공유하게 하는 공통 참조점, 곧 세계로 재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음악 내적 얇은 방법적 얇 습득에 본질적 토대를 이룬다(Reimer, 2017, pp. 182-183). 이러한 주장은 창의성이 인간 경험에 특별함을 더하는 음악적 의미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 음악: 인간에게 특별함을 더하는 세계

아렌트에게 탄생성은 세계와 긴밀히 연동되며, 세계는 내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출현을 뒷받침한다(Arendt, 2019). 본 절은 창의성이 작동하도록 지지하는 공통 참조점, 즉 인간 경험에 특별함을 더하는 음악을 아렌트가 제시한 세계 개념에 비추어 재맥락화한다. 이로써 리머가 말하는 ‘특별함’은 소리를 매개로 한 모든 의미 경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1) 특별함: 느낌과 언표 불가능한 의미

리머는 음악이 고유한 의미를 산출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음악적 의미란 사람이 음악에 직접 관여할 때 경험하는 것이다(Reimer, 2017, p. 205). 리머는 디아나 라프만(D. Raffman)을 참조하여 음악적 경험에 ‘언표불가능성(ineffa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의미 층을 언급한다. 이 층위는 음악적 경험이 우리에게 더하는 의미 가운데 언어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차원을 뜻한다. 우리는 음악적 경험이 더하는 특별함을 알고 느끼지만, 그것이 언어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Reimer, 2017, pp. 243-244). 따라서 특별함이란 음악이 소리를 매개로 생성하고 공유하는 ‘의미’를 뜻한다. 또한 다른 양식으로는 온전히 번

역할 수 없는, 오직 음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의미를 함축한다(Reimer, 2017, p. 208).

이때 ‘느낌(feeling)’은 수단이자 내용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인간이 하는 의미 경험에 특별함을 부가한다(Reimer, 2017, p. 321). 느낌은 음악적 소리를 구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음악을 경험할 때 인간이 느끼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로써 느낌을 핵심으로 하는 음악 내적 앎은 음악적 소리가 인간에게 더하는 모든 특별함을 포괄한다. 또한 리머의 논의를 따르면, 내적 앎은 방법적 앎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내적 방향타 역할을 하기도 한다(Reimer, 2017, pp. 182-183). 아렌트의 탄생성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음악과 직접 접촉할 때 형성되는 내적 앎은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리머가 말하는 특별함은 음악이 인간 경험에 더하는 모든 의미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 리머는 제3판에서 ‘미학(aesthetics)’이라는 용어를 좁은 사조가 아닌,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뜻으로” 사용한다고 밝힌다(Reimer, 2017, p. 30). 음악적 경험은 미적 경험에 한정되지 않는 다차원적 현상이며, 모든 음악적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은 소리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 규정한다(Reimer, 2017, pp. 71, 111).⁷⁾ 리머는 엘렌 디사나야케(E. Dissanayake)를 인용해, 특별함은 명시적인 미적 동기 없이도 발생하며 그러한 경험이 “어린이가 하는 단순한 창작이든 위대한 장인이 하는 복잡한 성취든 ...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한다(Reimer, 2017, pp. 111-113). 그리하여 이 특별함은 형식주의가 말하는 미적 표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심신이 통합되는 가운데 느낌이 수단이자 내용으로 작동하는 고유한 의미 구성 모두를 아우른다(Reimer, 2017, p. 321).

그러므로 아렌트의 세계 개념을 분석 틀로 삼을 때, 음악은 인간에게 특별함을 더하는 세계로 해석될 수 있다. 아렌트가 말한 세계는 제작이 구축한 내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 놓인다(Arendt, 2019, pp. 135, 229-231). 음악 또한 작품과 레퍼토리, 장르 규범 등 형식화된 소리와 그것을 지탱하는 문화적 기대 체계 등 세계적 지평을 이룬다. 리머가 안토니오 다마지오(A. Damasio)를 참조해 설명하듯 음악은 인간이 생생히 살아 있다는 경험을 획득하고 심화하기 위해, 느낌을 확장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양식이기 때문이다(Damasio, 2007, p. 194; Reimer, 2017, p. 126). 곧 음악은 단순한 청각 자극에 그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깊은 의식 수준에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형식화된 소리로 의미를 응축해 온 문화 장치이다. 이로써 음악은 내적 앎을 통해 특별함을 경험하는 개별적 차원을 지니는 동시에 소리를 매개로 인간 경험에 의미를 더하는 공통 참조점으로 세계적 차원

7) 본문에서 소리를 공통 준거로 삼는다는 말은 음악적 경험을 소리 경험으로만 환원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엘리엇과 실버만이 지적하듯 음악은 단지 청각적 경험을 넘어서며, 음악적 경험은 다감각적이다(Elliott & Silverman, 2021, p. 111). 본문에서 말하는 음악이라는 세계는 두 학자가 언급하는 다감각성을 배제하지 않되, 형식화된 소리가 공통 참조점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가리킨다.

을 함께 아우른다. 아렌트에 따르면,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그들을 맺고 분리한다(Arendt, 2019, p. 135).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이라는 세계도 사람들 사이에 놓여 공통 참조점으로 기능한다. 각자는 자기 자리에서 음악이라는 세계를 마주하며 특별함을 경험한다.

2) 특별함과 세계 사랑: 세계에 근거한 비도구적 결속과 분리

리머가 제3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듯, 음악은 인간 경험에 특별함을 더한다. 특별함은 음악이 소리를 매개로 인간 경험에 더하는 의미이며, 개인이 음악과 접촉할 때 경험하는 모든 음악적 의미를 포괄한다. 리머는 음악이 지닌 사회적 함의를 배제하지 않되 소리로 성취되는 음악적 고유성과 그에 따른 특별함을 중심에 둔다(Reimer, 2017, pp. 113, 253). 따라서 리머는 음악 외적 규범을 선명한 표준으로 전면화하기보다, 소리를 매개로 한 음악적 경험을 일차적 준거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아렌트의 세계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음악이라는 세계가 열어 주는 의미 경험을 일차적 준거로 삼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엘리엇과 실버만 역시 음악이 인간에게 더하는 개인적이고 심오한 의미를 전제하면서 도(Elliott & Silverman, 2021, p. 172), ‘예술적 시민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며 음악적 실천이 사회적 선(social goods, 이하 공동 선)을 향한 규범적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Elliott & Silverman, 2021, p. 5). 음악적 실천은 타인을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며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Elliott & Silverman, 2021, p. 90). 예술적 시민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프락시스(praxis)’ 개념, 즉 윤리적 통찰에 이끌린 행위에 부리를 두며(Elliott & Silverman, 2021, p. 82; Elliott et al., 2016, p. 6), 인종·젠더 등 사회적 쟁점을 수업 속 토론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Elliott & Silverman, 2021, pp. 243-244). 그러나 작품을 개인적으로 지각하고 사색하는 데 치중하는 미학적 관점은 윤리적 지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Elliott & Silverman, 2021, pp. 160-163). 다만 예술적 시민성이 공동 선을 명시적 규범으로 전면화할수록, 음악적 고유성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곧 ‘왜 음악이어야 하는가’를 더 분명하게 논증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엘리엇과 실버만이 호출하는 철학적 계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공동체적 구상을 참조하되, 이를 비판적으로 전유한다. 바로 이 지점은 리머가 말하는 특별함이 세계 개념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될 여지를 또렷이 부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폴리스(polis)’란, 가치 있는 삶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모인 목적 공동체이다(Aristotle, 2009, pp. 158-159, 1280b30-1281a1). 시민은 사적 필요와 욕구를 초월해, 공동체가 함께 추구할 선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논의했다. 따라서 실천주의가

프락시스를 통해 강조하는 사회적 선이란 고대 폴리스가 추구한 공동 선 개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오늘날 다원화된 음악교육 맥락으로 재맥락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아렌트는 제작과 행위를 엄격히 구별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폴리스 개념을 새롭게 사유한다. 아렌트는 폴리스가 특정한 목적을 설정할 경우 정치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위험을 지적하며, 정치는 제작 모형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Arendt, 2019, p. 335). 아렌트에게 정치란 복수성을 근거로 한 상호 출현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치 공동체가 비도구성을 상실하면 복수성이 위협받는다고 해석한다.

아렌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공동 탁자 비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탁자로 표상되는 세계는 공적 현전을 위한 공통 참조점으로 사람들 사이에 놓여 사람들을 맺고 분리한다(Arendt, 2019, p. 135). 사람들은 사이에 놓인 세계를 각자가 둘러앉은 자리에서 조망한다. 아렌트가 말하듯 인간 모두가 다른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기에(Arendt, 2019, p. 85), 세계를 보는 시각 또한 제각기 고유하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는 뚜렷한 목적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그들을 맺고 분리하며 복수성을 보존할 근거가 된다. 곧 특정한 규범적 지향으로 수렴되지 않더라도, 내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 놓인 세계가 열어 주는 모든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Arendt, 2019, 2023a).

리머가 제3판에서 뚜렷이 내세우는 특별함은 공동 탁자 비유와 음악적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상응한다. 즉, 아렌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하되 목적론적 독해를 경계하며 재구성한 세계 중심 공동체는 개인적 의미 경험과 공동체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리머에 따르면, “경험중심 음악교육철학은 음악이 경험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식에, 그리고 음악이 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모든 다양한 음악에 초점을 두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향하는 철학이다.”(Reimer, 2017, p. 113). 음악은 오직 소리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별함을 창조하고 공유하기 때문이다(Reimer, 2017, p. 71). 따라서 심오한 개인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규범적 지향으로 공동 선을 추구하는 실천주의와는 달리, 리머는 음악이 인간에게 더하는 모든 의미 경험을 특별함으로 인정한다. 이는 아렌트가 보여 주는 공동 탁자 비유, 즉 세계를 중심으로 한 결속과도 공명한다고 말할 수 있다. 뚜렷한 규범 지향성을 표상하지 않기에 결속력은 다소 느슨할지언정, 탁자를 둘러앉은 모든 구성원은 세계와 개별적으로 관계 맺는 동시에 서로가 탁자를 매개로 한 관계를 공적으로 목격한다. 이로써 음악만이 인간 경험에 더하는 특별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모든 음악적 의미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평이 열린다.

3. 음악적 판단

앞 절에서는 음악이 더하는 특별함을 세계 차원에서 재맥락화했다. 세계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의미 지평을 중심으로, 엘리엇과 실버만과는 다른 경로로 공동체적 결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아렌트를 환기해 보면 학교교육은 세계 소개와 탄생성 보호라는 이중 과업을 담당한다(Arendt, 2023a, pp. 348, 353). 따라서 학교 음악교육이 담당할 과제는 세계가 더하는 의미 경험을 심화하는 동시에, 전정치적 교육 맥락에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작을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다만, 사적 의미가 공적 의미로 전환되려면 소통 규범이 필요하다. 리머는 엘리엇과 실버만처럼 윤리적 지향을 전면화하지 않지만, 음악적 요구에 응답하는 창의적 결정과 역할별 능력, 내재적 윤리를 통한 음악적 판단 규범을 상세히 논의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II장에서 확인한 아렌트의 반성적 판단 개념을 전정치적 소통 규범으로 삼아, 리머가 제시한 음악적 판단 규범이 공통감과 확장된 사고, 소통 가능성과 어떻게 맞물려 사적 의미가 공적 형식화를 성취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탄생성이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방임이 아니라, 타인을 고려하며 타인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련하는 판단 훈련을 거쳐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이 요구하는 공통감과 확장된 사고, 소통 가능성을 음악적 맥락에서 번역할 필요가 있다.

1) 좋은 귀: 공통감을 형성하는 감각적 토대

리머에게 좋은 귀는 “예리한 정확성을 가지고 소리의 미묘한 뉘앙스를 정교하게 듣도록 훈련된 귀”를 의미하며(Reimer, 2017, p. 183), 내적 앎을 방법적 앎으로 추동하는 기초적인 요구 조건이다. 좋은 귀는 이미 발생한 소리를 되돌려 듣거나 앞으로 발생할 소리를 상상하며 듣게 하는 능력으로, 음악적 의미를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하다(Reimer, 2017, p. 183). 리머는 좋은 귀를 감각 기관을 넘어서는 ‘마음(mind)’이라 말한다. 곧, 역사 및 문화적 기대 체계 속에서 음악적 가능성과 잠재성을 식별하고 통합하여 음악적 의미를 소리로 현실화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이다(Reimer, 2017, pp. 182-184).

좋은 귀는 개인 내적 느낌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구별과 이유로 정련할 수 있게 하는 감각적 토대, 즉 공통감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렌트에 따르면, 공통감은 통계적 상식이나 다수 여론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타인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규범적 감각이다(Arendt, 2023b, pp. 156, 158-160). 리머가 말하는 좋은 귀 또한 개인 내적 차원에서 어떤 소리가 적합한지, 어떤 음악적 판단을 내리고 실행할지를 섬세하게 지각하고 상상하며 통합하는 감각적 토대를 형성한다. 따라서 좋은 귀는 다수가 선호하는 결정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악적 판단을 내리고 실행할지를 섬세하게 지각·상상·통합하여 타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산출하도록 돕는다. II장에서 정식화한 틀에 비추어 보면, 좋은 귀는 사적 의미가 예증적 타당성을 갖춘 공적 형식으로 성숙할 전제 조건을 마련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리머는 역할별 창의성이 본질적으로 타자를 고려한다고 설명한다. 좋은 귀가 공통감과 연결되는 감각적 토대라는 전제하에, 역할별 창의성은 어떤 판단 준거를 따라 현실화되는지 살펴보자.

2) 타자를 고려하는 규범: 역할별 창의성과 확장된 사고

우리는 아렌트의 ‘확장된 사고’, 즉 타자가 보는 관점을 상상력으로 방문한다는 규범을 전정치적 교육 맥락에 맞게 번역할 수 있다. 음악에서는 역할별 창의성에서 구체화되는 규범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리머에 따르면, 작곡가는 잠재적인 연주자와 청중이 무엇을 기대할지를 예상한다. 연주자는 작곡가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또한 장르 관습과 문화적 맥락을 통합하며 해석상 결정을 내린다. 또한 즉흥 연주자는 공연 규약과 현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고려하며 구조를 창출한다(Reimer, 2017, pp. 172-173, 175, 180-181). 이렇듯 타자를 고려하는 규범은 좋은 귀가 마련한 정밀한 변별 위에서 작동한다.

본고가 번역하는 바에 따르면, 역할별 창의성 안에서 작동하는 반성적 판단은 사적 느낌을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련하는 과정과 상응한다. 예컨대 리머에 따르면 연주자는 음악적 판단을 내릴 때, 개인 내적 느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르 규범 및 시대 양식 등에 기대어 해석상 결정을 내린다(Reimer, 2017, pp. 174-175). 이러한 준거는 아렌트가 말하는 예증적 타당성, 곧 본보기로 타당성을 제시하며 동의를 청구하는 판단 형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Arendt, 2023b, pp. 168-181; Kant, 2009, §18). 또한 실제 음악이라는 세계를 공통 참조점으로 삼아, 자신과는 다른 자리에서 세계를 조망할 타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상상력으로 방문하며 공통감에 호소하는 예증적 타당성을 청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음악적 고유성: 소통 가능성을 위한 공적 형식화

리머가 말하는 음악적 의미는 사람이 음악에 직접 접촉할 때 경험하는 것으로, 언어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층위를 갖는다(Reimer, 2017, pp. 205, 243-244). 그러나 언표불가능성은 음악적 의미가 소통할 수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칸트와 아렌트에게서 취미 판단은 개념으로 증명되는 보편성은 없지만, 본보기에 기대어 타인에게 타당성을 청구하는 주관

적 보편성을 지닌다(Arendt, 2023b, pp. 168-169, 180-181; Kant, 2009, §18). 이런 관점에서 보면, 리머가 “어떤 방식으로 음악이 창조되든,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음악적 조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Reimer, 2017, p. 159). 음악 내적 얇은 음악적 고유성을 갖추어 예증적 타당성을 청구할 때, 비로소 작곡이나 연주 및 즉흥 연주에서 소리로 현실화되는 소통 가능성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리머가 말하듯 음악적 의미에는 언어로 온전히 번역할 수 없는 층위가 존재하지만(Reimer, 2017, pp. 243-244), 그것이 설명할 수도 없으며 공적으로 제시될 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때 음악적 고유성은 음악을 특정한 목적에 예측시키지 않기 위한 방어적 논리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아렌트가 전유한 반성적 판단 개념을 참조하면, 사적 느낌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타자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정련되는 경로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련은 취미 판단이 청구하는 주관적 보편성이 소리라는 매개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리머를 읽으면, 음악적 고유성은 특정한 규칙을 강제하는 보편성이 아니라, 공통감을 가늠하며 타인에게 동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느낌을 형식화하는 규범 구조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즉,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공동체와는 다르나,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소리 형식을 함께 듣고, 상호 간에 판단이 교차하는 공통 장을 형성하는 소통 규범으로 작동한다.

리머는 음악적 고유성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곧 “음악에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 개인적 욕구를 느끼고 주목하는 것과 동시에 음악적 요구를 느끼고 주목하는 태도, 음악적 요구를 정직하게 실현하려는 태도”이다. 음악 만들기는 개인적 욕구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음악적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의미한다(Reimer, 2017, p. 159). 이런 관점에서 음악적 요구는 좋은 귀와 타자를 고려하는 규범에 기대어 개인적 욕구를 예증 가능한 판단으로 정련할 것을 요청한다.

한편, 리머는 음악 만들기에 내재한 자아와 비-자아 간 상호 작용이 윤리적 차원을 수반한다고 말한다(Reimer, 2017, p. 159). 이때 윤리적 차원이란, 음악적 실천이 지향하는 공동 선을 지시하지는 않지만, 음악적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으로 나타난다. 이는 엘리엇과 실버만이 말하는 예술적 시민성과 대립한다기보다는 상보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에 비추어 리머가 말하는 윤리적 차원을 새롭게 기술하면, 세계를 둘러싼 다른 구성원과 상호 간에 소통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윤리적 차원은 세계 사랑이 지시하는 세계 중심 결속 및 분리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4) 음악 내재적 윤리: 공통감 · 확장된 사고 · 소통 가능성을 훈련하는 규범

리머에 따르면, “우리가 음악가로서 창의적인 음악적 역할을 수행할 때마다” 윤리적인 고려가 요구된다(Reimer, 2017, p. 159). 그는 신뢰와 능력, 협력, 존중, 용기라는 다섯 가지 성향을 예시적 목록으로 제시한다(Reimer, 2017, pp. 188-193). 본고는 이를 리머가 제안한 주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정치적 소통 규범으로 읽어 공통감과 확장된 사고, 소통 가능성을 훈련하는 판단 구조로 재구성한다.

첫째는 신뢰이다. 리머에게 신뢰는 “음악 활동이 의지하는 기초 지지대”이다(Reimer, 2017, p. 189). 작곡가와 연주자, 청중 사이 관계망은 상호 신뢰 위에 성립하며, 학교 앙상블에서도 신뢰는 연주 성패를 좌우하는 지지대로 작용한다(Reimer, 2017, pp. 188-189). 이렇듯 신뢰는 아렌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타인도 음악이라는 세계를 기반으로 개인이 형성한 음악 내적 앎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하리란 기대를 내포한다. 신뢰는 타자로 표상되는 세계를 함께 조망하는 타인을 향한 규범적 전제이자, 공동 타자를 둘러앉은 사람들이 상호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나아가 신뢰는 공통감을 지지하며, 사적 의미가 공적 형식을 갖추어 성숙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이 된다.

둘째는 능력이다. 리머에 따르면 각 음악적 역할은 과업을 수행할 적절한 능력을 윤리적 의무로 요구한다. 어떠한 창작도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적절함은 절대치가 아니며, 연령과 경험, 목적에 따라 변화한다(Reimer, 2017, p. 189). 따라서 작품을 연주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세계 최상급 수준의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할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진심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도” 일어난다는 리머의 진술은,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근거해서 이해될 수도 있다(Reimer, 2017, p. 175). 능력은 단순 기교를 넘어 좋은 귀에 뿌리내린 방법적 앎을 의미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대 체계를 식별하고 소리로 응답할 수 있는 변별력을 뜻한다. 리머가 말하듯 좋은 귀가 예리한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변별하는 감각적 토대라면(Reimer, 2017, p. 183), 능력은 좋은 귀가 포착한 정밀성을 실제 소리로 현실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런 점에서 능력은 아렌트를 참조하면, 공통감을 정밀화하고 사적 의미가 예측적 타당성을 갖춘 공적 형식으로 성숙하도록 매개하는 실천 조건이다.

셋째는 협력이다.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자발적 선택을 의미하며, 집단적 음악 활동뿐 아니라 독주에도 요구되는 태도이다(Reimer, 2017, p. 191). 따라서 협력은 타자가 무엇을 기대할지, 또는 상호 간에 역할 규약이 무엇인지를 상상력을 활용해 방문하는 확장된 사고를 실천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작곡과 연주 및 즉흥 연주 과정에서 내리는 해석상 결정은 이런 절차를 거쳐 예측적 타당성을 청구한다. 아울러

리머에 따르면, 감상자 또한 음악적 의미를 협력적으로 만들고 수용하기에 타인과 협력한다(Reimer, 2017, p. 191). 감상은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을 산출하지는 않고 음악 내적 앎을 불러일으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음악은 협력적 태도와 윤리에 대한 의존 없이는 불가능하다.”(Reimer, 2017, p. 191)

넷째는 존중이다. 리머에게 상호 존중은 “음악적 표현의 힘을 생성시키는 엔진”으로,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Reimer, 2017, p. 192). 아렌트를 틀로 삼아 해석한다면, 존중은 사람들 사이에 놓인 세계가 만들어 내는 거리를 보전한 채 타인을 공적 현전 속에서 마주하는 태도다(Arendt, 2019, pp. 300-301). 세계는 사람들을 서로 맺어주면서도 분리하며, 우리는 각기 다른 자리에서 세계를 조망하는 타인과 함께할 때에만 복수성을 경험한다(Arendt, 2019, p. 135). 그러므로 존중은 타인이 보는 관점을 상상력으로 방문할 거리를 지키면서도, 강제 없이 설득할 수 있는 공통감을 떠받치는 규범적 기반이 된다(Arendt, 2023b, pp. 112-113, 156-160). 또한 복수성 가운데서만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존중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이 열릴 여지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는 용기이다. 리머는 음악적 창조가 “우리가 옳을 수 있는 것만큼 틀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위험한 도전을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를 윤리적 성향으로 격상한다(Reimer, 2017, p. 192). 동시에 그는 “예술에 틀린 답이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필요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교정한다. 창의성은 음악적 의미를 찾기 위한 숙련된 탐색이며, 모든 결정은 음악적 요구에 비추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Reimer, 2017, p. 192). 따라서 리머가 말하는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라 예증적 타당성을 겨냥해 위험을 떠맡는 태도이며, 필연적으로 타자를 전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아렌트에게서 행위는 본질상 새로운 시작에 내재한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기에(Arendt, 2019, pp. 275-276), 용기는 탄생성이 새로운 시작으로 열리도록 하는 조건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전정치적 맥락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탄생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위험을 안전하게 감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리머는 음악교육이 윤리적 인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질문하며, 음악이 일반 윤리성에 전이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Reimer, 2017, p. 194). 그럼에도 음악은 “음악적 특징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삶을 고양하고 윤리적 차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때 핵심은 음악만이 요청하는 요구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창의적 결정을 훈련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Reimer, 2017, p. 194). 본 절에서 살핀 다섯 가지 성향은 바로 이런 내재적 윤리에 해당하며, 아렌트가 제시한 공통감과 확장된 사고, 소통 가능성으로 번역되어 사적 느낌을 예증적 타당성을 갖춘 공적 형식으로 정련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리머가 제시하는 윤리적 차원은 특정한 공동 선을

공언하지 않되, 음악적 세계를 중심으로 공적 세계에 참여할 능력을 전정치적 맥락에서 훈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엘리엇과 실버만이 강조하는 예술적 시민성과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사랑을 규범으로 삼아 세계를 중심으로 결속과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IV. 교육적 함의

본 장은 III장에서 재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정치적 교육 맥락에서는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로 논의를 옮긴다. 핵심은 아렌트가 말하듯 교육이 담당할 두 가지 과업과 일치한다(Arendt, 2023a, pp. 348, 353). 즉,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이라는 세계를 공동 탁자로 삼아 소리를 주된 매개로 세계를 소개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가 지닌 탄생성을 보호해야 한다. 공동 탁자에 상응하는 수업 설계를 위해 사적으로 형성된 의미는 공적 형식으로 정련되어야 한다. 이런 전환을 떠받치는 내재적 규범은 신뢰와 능력, 협력, 존중, 그리고 용기다(Reimer, 2017, pp. 189-193).

1. 세계 소개 원리

음악은 소리를 매개로 인간 경험에 특별함을 더하는 세계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학교는 사적 영역과 공적 세계를 매개하는 전정치적 기관으로, 교사는 세계를 대표해 세계를 소개해야 한다(Arendt, 2023a, pp. 348-349). 음악이 인간에게 더하는 특별함은 무엇보다 소리를 매개로 성취되므로, 수업 설계는 소리 경험을 우선하고 언어는 보조 수단으로 배치해야 한다.

음악적 의미는 개인이 소리와 직접 상호 작용하며 형성하는 내적 앎에 뿌리를 두며, 내적 앎은 곧 방법적 앎을 추동한다(Reimer, 2017, pp. 182-183, 205). 이때 좋은 귀는 이미 들린 것과 앞으로 들릴 것을 정밀하게 가늠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대 체계 속에서 음악적 가능성을 식별하고 통합할 기반을 마련한다(Reimer, 2017, pp. 182-184). 본고에서 좋은 귀는 사적 느낌을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정련하는 감각적 토대이다. 좋은 귀는 음악을 소리로 직접 접촉하는 경험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한편, 언어는 음악이라는 세계를 소개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리머는 내적 앎과 방법적 앎을 본질적 앎이라 말하지만, 부수적 앎에 속하는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앎과 맥락적 앎이 균형을 이룰 때 깊은 음악적 이해에 도달한다고 설명한다(Reimer, 2017, pp. 148, 297). 따라서 세계를 소개할 때, 리머가 말하듯 언어는 관습적 상징을 따라 합의된 의미

전달에 용이하며 원리와 맥락을 명료화할 수 있다(Reimer, 2017, pp. 205, 210-211).

그러나 언어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리머에 따르면, 언어는 우리를 음악이 의미하는 수수께끼 끝자락으로 이끌지만, 음악적 경험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Reimer, 2017, pp. 205, 208, 211-215). 따라서 언어는 음악적 경험을 고양하는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음악적 경험은 반드시 학생이 직접 음악을 접촉하고 경험하여 내면화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Reimer, 2017, pp. 268, 297).

엘리엇과 실버만 역시 음악 자체로 나타나는 개념을 전면화한다는 점에서는 리머와 견해를 공유한다. 그들에 따르면 언어적 개념은 음악적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음악 자체로 나타나는 개념을 대체할 수는 없다(Elliott & Silverman, 2021, p. 354). 다만 두 학자는 언어적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한층 강하게 주장하고(Elliott & Silverman, 2021, p. 355), 리머는 내적 앎, 혹은 음악적 경험을 고양하는 수단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강조점이 다르다.

정리하면, 아렌트가 제시한 첫 번째 교육적 과업으로 음악이라는 세계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리를 직접 제시해야 한다. 이때 언어는 음악적 경험을 고양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다음 절에서는 아렌트가 제안한 두 번째 교육적 과업으로 탄생성 보호 원리를 탐색할 것이다.

2. 탄생성 보호 원리

아렌트에 따르면 학교는 사적 영역과 공적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전정치적 기관으로, 새로운 시작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과업을 맡는다(Arendt, 2023a, pp. 348, 358). 본 논의에서 탄생성 보호는 학생을 무제한적으로 방임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새롭게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리머가 말하듯 창의성은 소수만이 독점하는 능력이 아니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Reimer, 2017, p. 167). 본고는 리머가 제시한 윤리적 다섯 가지 성향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원리를 수업 설계 원리로 번역한다.

탄생성 보호는 실패를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시도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불완전성을 동반한다(Arendt, 2019, pp. 275-276). 그러나 불완전성이 곧바로 평가로 이어질 때, 창의성을 제발할 동기를 상실하기 쉽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시도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재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 순환을 기본 원리로 삼아 다양한 공개와 철회, 수정을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⁸⁾

8) 디지털 제작 도구와 생성형 AI 기반 작곡·편곡 보조 도구는 시도-피드백-재시도로 이루어지는 시간적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모티프를 바탕으로 음색·화성·구조 변주분을 용이하게 산출·청취·비교하

이때 리머가 말한 다섯 성향은 위 순환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지탱하는 규범이 될 수 있다. 신뢰와 존중은 탄생성 보호를 위한 공적 형식화를 떠받치는 기반으로 작동한다. 리머에게 신뢰란 음악 활동이 의지하는 기초 지지대이다(Reimer, 2017, pp. 188-189). 본고는 신뢰를 전정치적 교육 맥락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실패나 견해 차이가 성취 평가 또는 불이익으로 곧장 환원되지 않도록 하는 비처벌성 규약을 공개적 약속으로 제안해 본다. 이때 교사는 스스로 미완 시도와 수정을 먼저 드러내면서 상호 신뢰를 모델링할 수 있다. 존중은 아렌트가 말한 세계를 중심으로 한 거리를 전제한다(Arendt, 2019, pp. 300-301). 예컨대 비평은 인격을 향하지 않고 소리와 표현 선택, 맥락에 말을 걸도록 한다. 판단은 소리로 나타나는 본보기로 공통감을 가늠한다. 동시에, 리머에 따르면 존중은 타인을 공유된 과업에 동등한 기여자로서 인정하는 규범이며, 협력과 신뢰, 적절한 능력과 상호 의존한다. 이는 좋은 귀 형성과 직결되며, 사적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구별과 이유로 정련할 근거가 된다(Reimer, 2017, p. 192). 이렇듯 신뢰와 존중은 동의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본보기로 제시한 소리 근거에 기초해 예증적 타당성을 청구하는 공개성을 훈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능력과 협력은 탄생성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능력은 개인 기량을 서열화하는 척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최소 발판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협력은 다양한 역할을 교차 방문하도록 요구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예컨대 동일한 작품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조망하도록 할 때 학생은 자신의 관점을 확장하며 판단을 점차 공유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귀를 획득할 수 있다. 작곡가가 특정한 프레이즈를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또는 여러 연주를 비교 청취하며 각 연주자가 어떤 관점으로 연주했는지를 상상력을 활용해 방문하며 점차 관점을 확장해 갈 수 있다. 이때 협력은 도덕적 규범 대신 관점 교차를 요구하는 과업 구조로 구현된다.

마지막으로 용기는 기꺼이 옳을 수 있을 만큼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내하는 개인적 성향이다(Reimer, 2017, p. 192). 학교라는 전정치적 맥락에서는 용기가 발현되고 지속되도록 실패를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시도를 제도화하며 위험을 완충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리머가 말하듯 음악적 요구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위험을 무모함이 아닌 학습할 수 있는 시도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건은 상호 의존 가운데 반성적 판단을 내면화하게 하며, 타인에게 동의를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소리 자체를 근거로 설득할 수 있는 형식을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즉, 용기가 개인적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현전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적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면서 소리를 예증으로 제시하여 예증적 타당성을 가늠하는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리머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상태이자 과정으로 창의성을 민주화한 것과 절차적 차원에서 맥을 같이한다(Reimer, 2017, p. 167).

V. 결론

본고는 아렌트의 후기-근대적 인문교육 개념, 특히 탄생성-세계-반성적 판단 개념을 분석 틀로 삼아 리머 제3판을 새롭게 해석한 글이다. 아렌트가 말하는 세계 소개와 탄생성 보호라는 이중 과제에 비추어 개인적 의미 경험과 공동체성이 어떻게 상호 내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양립 가능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음악을 세계 개념에 비추어 재구성하면서 음악이 인간 경험에 더하는 의미를 심화할 수 있도록 세계를 소개해야 함을 검토했다. 한편으로, 음악이라는 세계가 인간에게 더하는 특별함을 혐의의 심미적 가치로 환원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기대어 학습자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열도록 탄생성을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 글이다. 그리하여 개인적 의미 경험에 기반한 개별성 혹은 주체성을 강조되되, 그것이 타자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동체성을 성취하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상상하는 길을 열고자 했다.

본고가 제시하는 주장은 인과적 명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 교육과정이 요청하는 공동체라는 가치를 도구적 목표로 삼지 않으면서도, 수업 형식과 절차 차원에서 개인적 의미 경험과 공동체성이 대치되지 않을 수 있는 구성적 조건을 공통감과 확장된 사고, 소통 가능성을 거쳐 고유한 음악적 경험으로 훈련할 수 있음을 살핀 것이다. 이것은 음악이 윤리적 인간을 만든다는 강한 전이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음악이 고유한 방식으로 세계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결속과 분리를 매개하는 형식화를 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엘리엇과 실버만은 예술적 시민성 아래 돌봄과 정의 등 뚜렷한 공동 선 지향을 전면화한다. 반면, 아렌트의 후기-근대적 인문교육 개념을 경유해 재독해한 리머는 오직 음악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계를 공통 참조점으로 삼아 예증적 타당성을 갖춘 훈련으로 다원적 결속을 성취하는 다른 경로를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역할별 창의성은 타자를 고려하는 규범을 통해 확장된 사고를 훈련하고, 내재적 윤리는 강제 없는 공통감과 소통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용기는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결정을 감내하는, 위험을 수용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Reimer, 2017, p. 192). 이에, 학교는 학생이 가까이 위험을 감내하며 재시도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음악교육은 공동체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구성적이고 형식적인 조건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엘리엇과 실버만은 공동 선을 명시적 규범으로 하여 공동체를 옹호한다면, 리머는 세계를 중심으로 한 비도구적 결속으로서 공동체를 전정치적 장에서 공적 현전 능력을 훈련하는 경로로서 제시한다. 이로써 음악교육은 개인적 의미 경험과 음악이라는 세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을 서로 다른 논리로 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철학적 개념 분석에 근거한 문헌 연구로서, 리머 텍스트를 구성적으로 재맥락

화한 글이다. 후속 연구는 본고가 제시한 형식적 조건을 바탕으로 평가 루브릭과 피드백, 재시도 설계 원칙 등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rendt, H. (2019). *The human condition* (J. W. Lee, Trans.). Hangil Publishing Co.
- Arendt, H. (2023a). *Between past and future* (Y. K. Suh, Trans.). Hangil Publishing Co.
- Arendt, H. (2023b).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S. W. Kim, Trans.). Hangil Publishing Co.
- Aristotle. (2009). *Politika* (B. H. Chun, Trans.). Sup.
- Biesta, G. (2022). *World-centred education: A view for the present*.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Damasio, A. (2007). *Looking for Spinoza: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J. W. Lim, Trans.). Science Books.
-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ott, D. J., & Silverman, M. (2021). *Music matt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E. S. Choi, D. W. Kwon, J. E. Jeong, J. H. Shin, Y. H. Seung, M. J. Seog, M. J. Yoon, S. J. Lee, J. W. Chung, K. S. Moon, M. Y. Choi, J. H. Oh, & H. J. Ham, Trans.). Kyoyookbook.
- Elliott, D. J., Silverman, M., & Bowman, W. D. (Eds.) (2016). *Artistic citizenship: Artistry, social responsibility, and ethical praxis*. Oxford University Press.
- Kant, I. (2009). *The critique of judgment* (J. H. Baek, Trans.). Acanet.
- Lilja, P. (2018). Defending a common world: Hannah Arendt on the state, the n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37, 537-552. <https://doi.org/10.1007/s11217-018-9618-3>
- Ministry of Education (2022). *The national framework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um*. Proclamation No. 2022-33 [Annex 1]. Ministry of Education.
- Park, E. J. (2018). *Rethinking the meaning of teaching: Drawing upon the concept of action of Hannah Arend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gelski, T. A. (2005). Music and music education: Theory and praxis for “making a difference.”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7(1), 7-27. <https://doi.org/10.1111/j.>

1469-5812.2005.00095.x

- Regelski, T. A. (2011). Praxialism and “aesthetic this, aesthetic that, aesthetic whatever.” *Action, Criticism, and Theory for Music Education*, 10(1), 61-99.
- Regelski, T. A. (2016). *A brief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music and music education as social praxis*. Routledge.
- Regelski, T. A. (2022). Musical value and praxical music education. *Action, Criticism, and Theory for Music Education*, 21(1), 15-55. <https://doi.org/10.22176/act21.1.15>
- Reichenbach, R. (2023). Hannah Arendt on the very possibility of democratic education. In J. Culp, J. Drerup, & D. Yacek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democratic education* (pp. 74-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009071536.008>
- Reimer, B. (2017).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dvancing the vision* (E. S. Choi, D. J. Kwak, & K. H. Kim, Trans.). Kyoyookbook.